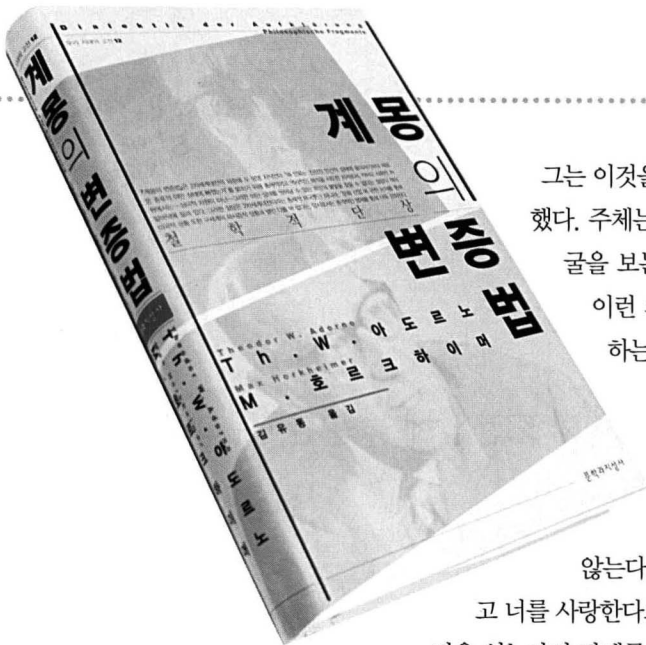


《계몽의 변증법》

#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들

자기 얼굴을 모르고 평생 산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거울이 없던 원시인들은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아야했고 거울이 있는 우리들은 오직 타인의 시선으로 본 반대편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철학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타자에 의해서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헤겔이다.

글 권택영



《계몽의 변증법》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지음 |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 398쪽 | 값 16,000원

그는 이것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 하여 너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했다. 주체는 오직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때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너다. 내 얼굴을 보는 것은 거울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고귀한 변증법의 실천이다. 변증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타자의 부름이다.

사랑은 연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부름이다. 마치 우리들의 삶이 언제든지 죽음이 부르면 하던 일을 거두고 가야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는 결코 평생 자기 얼굴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얼굴이 타인의 시선임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조차하지 않는다. 아무리 죽음이 주인이고 삶이 노예라고 말해도 평생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 의미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잇는다면 관계를 부정하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정반’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합!’이라고 외치는 괴물이 우리들 내부에 있다.

### 부정성, 결코 떼어버릴 수 없는 밝음의 그림자

열림을 지우고 하나가 되고 싶은 충동, 합을 외치는 괴물을 추적해보자. 프로이트는 이것을 “죽음 충동”(the death drive)이라 불렀고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부정성”(the negative)이라 부른다. 칸트의 실천이성은 이것을 간과했고 헤겔의 이성조차 후반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변증법을 배반하고 합을 인정한다. 도대체 부정성은 무엇이기에 열면 닫히고 다시 열면 닫히는가. 그것은 계몽을 거부하는 어둠이면서 동시에 계몽을 여는 밝음이었다.

20세기 문화사에서 나치즘은 대표적인 부정성이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나치즘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가. 프로이트도 영국으로 망명하여 간신히 수용소를 면했고 아도르노 역시 1934년 나치에 의해 추방되어 영국에 잠깐 머물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1949년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독일로 귀국하여 1956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이 된다. 그러나 모든 유대 지식인들이 죽음을 피한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잠깐 일했던 발터 벤야민은 국경을 건너려다 실패하고 자살했다. 훗날 독일로 다시 돌아온 아도르노는 안타깝게 죽은 가난한 벤야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글을 출간하였고 유명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오늘날 아우라를 상실한 복제문

화시대의 예술을 예견한 탁월한 글이 된다. 아도르노의 부정성은 벤야민이 예견하면서도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론을 설명한 핵심용어다.

아도르노의 제자였던 하버마스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명명한 《계몽의 변증법》은 호르크하이머와의 공저로 출간되었고 1979년에야 영어로 번역된다. 왜 하버마스는 이 책을 역사상 출간된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말했을까.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는 왜 더 이상 푸코와 데리다가 아니라 벤야민과 아도르노를 읽기 시작했을까.

부정성을 지우려는 인간 심리를 동양의 장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의 그림자가 싫어서 사내는 그것을 떼버리려고 힘껏 달렸다. 그러나 달아날수록 그림자는 더 빨리 쫓아왔고 마침내 그는 지쳐 쓰러져죽는다.” 장자는 말한다. “그가 그늘에 가서 편히 쉬었다라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텐데...” 우리는 어둠이나 증오를 싫어한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타자의 시선이라고 믿지 않듯이 밝음은 어둠 없이 존재하지 않고 삶은 죽음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은 증오에서 나온 것임을 잇는다. 부정성은 밝음이라는 계몽의 이면으로 결코 떼어버릴 수 없는 그림자다.

### 대중의 계몽과 군중의 부정성은 동전의 양면

민주주의와 산업사회는 다정한 동반자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민주’ 라면 개인의 능력은 ‘산업’ 이다. 봉건사회와 민주사회의 초기에 예술은 개인의 독창성에 의존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대중의 힘이 커지고 문화의 향유자가 되면서 ‘대중문화’(mass culture)가 태어난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면 문화와 예술은 개인의 독창성이 아니라 대중의 환호에 의지하고 대중의 변덕과 취향이 예술을 좌우하게 된다. 대중이 권력이 되는 사회는 군중사회다. 대중이 계몽이라면 군중은 부정성이며 이들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대중은 개성을 인정하지만 군중은 하나의 거대한 에로스다.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에로스의 욕망이다. 사랑은 차이를 지우고 싶은 정염이다. 차이를 지우려면 너와 내가 부서져 한 몸이 되어야 하므로 너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죽음충동이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부정성은 사회시스템 속에 잠재한 죽음충동이다. 아도르노는 죽음충동을 인정하지 않은 칸트의 이성을 비판하고 죽음충동을 발견했으나 그것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한 프로이트를 수정한다. 부정성은 이성의 얼룩으로 실천에서만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실천에서 차이를 지우려는 죽음충동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천이성을 도덕으로 보았던 칸트와 정 반대가 된다.

아도르노는 헤겔의 후예로서 개인의 무의식은 사회적 관계 속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아무리 개인의 독창성이 숭고해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파시즘으로 변질된다. 아무리 고귀한 독창성도 무리를 이루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역사상으로 고립된 영웅이란 없고 개혁의 저항조차 공격성이라는 부정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계몽은 그 속에 계몽을 뒤엎는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은 총체성을 낳으면서 다시 저항을 받는다. 이것이 패러다임이다.

몸을 사랑하는 씨름꾼은 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자는 사냥꾼이 되며 문화를 사랑하는 대중은 예술을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군중의 환호에 의지하는 예술 상품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벤야민과 아도르노를 읽는 이유다. ■

권택영님은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1997년 김환태 평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잉어패라의 시대 : 지적이본 후기산업 사회) 등이 있다.